

산재예방유공 노동부장관상 수상



김 효 경 (한국산업간호협회 광주전남북지부장,
(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실을 함께 나누고, 최신 안전보건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제 39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가 지난 7월 3일부터 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한 해 동안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애쓰고 노력한 산업보건인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산재예방유공자 포상도 진행되었는데, 올해 산재예방유공 노동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는 한국산업간호협회 광주전남북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김 효경 보건관리자에게 돌아갔다. 포상식은 안전보건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3월까지 전국 지방관서 중 재해율 감소 1위를 기록한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히며, 산재예방 캠페인 등 지역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가 전개된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지청장 박덕회)에서 거행되었다.

취미와 특기를 묻자 '남을 돕는 것' 이라고 한마디로 답하는 엄마 같은 푸근함을 지닌 김효경 선생님은 보건소 진료실, 간호양성소 강사, 종합병원급 임상간호사 경력 외에 산업간호사 경력만 만 17년째인 산업 간호의 인재이다. '건강을 등한시하는 근로자가 스스로 건강의 소

중함을 인식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라고 스스로없이 산업장 근무 이유를 밝힌다. 앞으로의 꿈도 '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업장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이들이 건강증진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건강한 사업장과 가정을 만드는 것' 이라고 소박하게 뜻을 밝힌다.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어려움이 없냐고 지나가는 말처럼 물어보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 이라고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준다.

입사 초 건강진단 후 유소견자 사후관리를 위한 건강 상담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번번이 근로자들은 보건관리자와의 상담을 기피하고 민간요법이나 과학적으로 확신이 서지 않는 대체요법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선생님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였다. 그러나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먼저 다가가 안부 인사도 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먼저 마음을 열었다. 진솔한 태도로 친근한 대화를 이끌어 가며 꾸준하게 관심을 보여주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때까지 지속적인 개인 상담을 해나갔다. 결국 선생님의 진심어린 관심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스스로 건강 상담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자신의 건강관리를 나름대로 잘 관리해나가는 근로자가 하나 둘씩 늘기 시작한 것이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산업간호의 경력이 늘어가면서 입사초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식은 땀 나는 일들이 종종 있다. 아직 건강관리실 업무가 손에 익숙지 않을 때 직업훈련생 한 명이 식당 계단에서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 유리창에 머리를 받는 사고가 생겼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목의 혈관을 손상시켰고 과다 출혈로 생명까지 위독할 수 있는 긴급한 응급상황이었다. 적절한 지혈을 유지하며 치료를 받게 하고 완치될 때까지의 긴장감이란... 그 후 작업장에서 눈빛이 마주치면 미소로 먼 얼굴로 목에 난 영광의 상처를 가리키며 안전행동을 다짐하는 착실한 근로자가 되었다.

보건관리자는 언제나 근로자의 편에서, 근로자의 입장으로, 근로자의 말을 경청하는 따스한 가슴과 귀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로자의 작은 불편함에도 민감할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중용의 위치를 지켜가며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기술도 습득해야 한다. 친절함은 기본 소양으로 습관화하고,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한국 산업간호협회 또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한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시간이 갈수록 업무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며 행정 능력을 더욱 요구하는 때가 되었다. 회사의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업무 진행을 서류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능력에 부족함을 느낀다. 세대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고군분투 중이다.

김효경 선생님은 가끔씩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한다. 목욕과 청소 봉사를 하기 위해서다. 또한 주기적으로 학교 결식아동 돕기를 하고 있다.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줄 수는 없지만 작은

관심과 사랑이 살맛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이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산업간호사에게 주는 상을 대표로 받았기에 모든 산업간호사와 함께 수상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며 담백하게 웃는 그녀를 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오뎅이가 연상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닮고 싶은 모델처럼 우뚝 서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